

GRAMMAR ACHIEVEMENT TEST IN ENGLISH

전면 개정판

바른영어훈련소

수능 / 공무원 / 토플 / 텡스 등  
각종 시험대비 독해 구문법

# 만점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100

▶ YouTube “영문법” 1위\*

\* 100개의 엄선 된 지문 완벽 칼분석

\* 각 지문의 문법사항 완벽 점검

3시간만에 끝내는  
영문법 제공



You Tube 무료 강의

▶ YouTube

130만 조회

26만시간 시청!

[www.properenglish.co.kr](http://www.properenglish.co.kr)

김정호 지음

\*You Tube 바른영어훈련소 채널 공식 기록 2019.1.1 기준

\*You Tube 검색창 “영문법” 검색시 1위 노출 (광고 제외) 2019.1.1 기준

# 만점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개정 4판 1쇄 발행 2019. 02. 20

저 자 김정호 (Tommy Kim)

발행처 (주)바른영어사 출판사업부

기 획 (주)바른영어사

디자인 강민정

인쇄처 필커뮤니케이션

주 소 [ 16889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0, 4층 403-2호

대표전화 (02)817-8088 | 팩 스 (031)272-0580

홈페이지 [www.properenglish.co.kr](http://www.properenglish.co.kr)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97조의5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ISBN 979-11-85719-25-2

CIP 제어번호 2019003008

정가 16,900 원

**난무(亂舞)**... 어지럽게 춤추다. 갈릴레이를 아십니까?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가장 먼 지평선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갈릴레오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앉아 그 세상을 보았던 것이다.” 그 갈릴레오가 지구와 그 외의 행성들, 그리고 우리의 항성인 태양을 관측하고 그 당시까지 유럽세계의 천체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프톨레마이오스(Ptolemaios, 영어발음 톨레미)의 천동설에 근거한 거짓된 세계의 원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가해지던 사회적 형벌과 독설의 수준은 가능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는 1616년 그의 첫 번째 종교재판이후 1633년 다시 굴욕적인 맹세, 즉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입각한 세계관이 사악한 이단의 행위이며 다시는 이를 연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서 말입니다. 그 후 평생 가택연금을 당했고 사후 장례식도 치를 수 없었으며 묘비조차 세울 수 없었던 가혹한 형벌 앞에서 근대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이 위대한 천재가 짊어져야 했던 멍에를 헤아려보십시오. 이런 일은 불행히도 인간사의 흔한 부조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조리말입니다.

###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어교육논란

흔히들 한국인은 민족적 자질이 우수하고 근면하며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됩니다. 특정 영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인들이 장인이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남들이 수 십년 걸려서 이룩하는 업적들을 한국인들은 그 십 분지 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 내곤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참으로 기운 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한국인들이 연속된 좌절과 패배를 맛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혹시 영어교육이라는 분야는 아닐까요? 오랜 세월 동안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이 국제어에게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소위 ‘먹고 살만 한데’ 말입니다. 아니면 이 패배를 민족 언어에 대한 자긍심, 반사대주의 혹은 정치적 냄새가 진동하는 다른 ‘덕목’들로 가린 채 한시적 무통주사의 평화 속에 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요? 환부는 썩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연전, 한 문필가가 모 신문에 [영어를 제 2국어로 하는 2개 국어 병용교육]에 관한 진지하고 용감한 소고를 올렸다가 비판론자들의 포화를 맞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그 분은 소설가이자 국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영어 울렁증

저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우리의 초, 중, 고교의 교과과목에 투영시켜 보았습니다. 많은 교과량을 배당받고도 처참한 이 영어교육의 결과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대한민국 대표선수(?)들의 현란한 문구와 구호도 결국은 상업주의로 경도된 [자칭]이자 [자처]가 아니었던가요?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 국제어에 관해서는 심하게 말해 지리멸렬상태에 있습니다. 가족해체를 초래했던 조기 유학이라는 극약처방까지 쓰게 되었으니까요. 각종 시험에서 어떻게든 정답이라는 것을 낚아가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시험점수일 뿐 우리는 여전히 영어를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영어울렁증(English Anxiety)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된 사회적 신드롬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를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런 지리멸렬의 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당한 여러 영어 학도들과 함께 말입니다.

## 영어 공부 절대로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영어를 공부로 하지 말고 즐겨라’ 하는 식의 다소 비 전문적이고 단편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쌓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목적이 있다면 그 지식이 습득되는 배경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물을 예로 들어 본다면, 그 건축물이 사막에서 만들어져, 그곳에 세워지는 것인지, 강변에서인지, 숲에서인지, 암벽 산에서인지에 따라 사용하는 건축 재료와 건축기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집트의 기자사막위에서 목재건축물을 상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그 강력한 모래바람과 강렬한 태양광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석재가 적합했겠지요. 석재를 사용함으로써 건축기법도 석재에 맞게 이루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건축술은 아직도 미스터리이지만 말입니다. 영어 학습이라는 건축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곳이 학습에 적합한 곳인지, 실전에 적합한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영어권 국가와 영어모국어권 국가, 이 둘 중 어디서 영어를 배우느냐에 따라 학습법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생존영어의 환경이란 것은 엄밀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영어모국어권 안에서 영어를 배운다면 우리는 이미 영어를 ‘배우는 것’ 이 아니라 체득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라면 말과 소리가 먼저 체득되고 글과 이에 따른 법칙은 자연스레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우던 과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 내지 제 2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본다면 단 순간도 생존을 위해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는 서

바이벌 랭킷지(language for survival)가 아니라 저스터나더 초이스(just another option) 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학습의 결과는 다소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진학,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 여행, 교제, 심지어 취미생활에 대한 추구까지 이 영어능력은 혜택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결심은 매우 타당하게 보입니다.

### micro to macro

[저는 높게 날았습니다. 그리고 숲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숲이니 당연히 나무와 물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곳은 숲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있을 것이라고 상정하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나무라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즉 나무에 대한 정보가 없는 비행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숲’ 이라는 단어는 ‘나무’ 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다음 단계의 거시안목입니다. 이 사람은 미시안목조차 훈련되지 않은 상태로 현학의 허세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앞서기, 즐기, 뿌리 등, 나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모른 채 숲을 안다고 나서지 말기로 합시다. 그것은 본말의 전도입니다. 글에서 그리고 말에서, 행위의 주체인 주어를 어떻게 만들고 구별하는지, 그 후 술어동사 부분은 구성하고 전개하는지,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가 무엇인지, 이파리들을 가지에 붙들어 매는 접속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우선 알아야 나무의 종류들도 구별하고 그것들이 군집을 이루는 숲의 모양과 특성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연계를 이루는 작은 것들에 대한 우선적 이해가 다음 지식을 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한은 top down 방식이 아닌 micro to macro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 한국어와 영어, 그 둘만의 상관성

영어를 배우는 민족마다 그 민족어의 체계가 영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갖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즉, 중국어와 영어, 일본어와 영어, 스페인어와 영어 등등에 적용되는 학습법은 서로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에 우선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설불리 원서를 들고 허세를 부리거나, 막무가내로 영어를 듣고 따라하거나, 무조건 영어 드라마나 영화에 도전하다보면 쉽게 한계에 부딪히고 흥미를 잃게 됩니다. 알파벳과 한글문자의 차이, 발음체계의 차이, 위치어인 영어와, 정황어인 한국어의 차이, 각 언어의 수식위치에서의 차이, 이런 차이점들이 우선적으로 학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자신감이 생깁니다.

## 올바른 영어 학습법

선부른 ‘직독직해’ 훈련은 오히려 영어를 더욱 어려워 보이도록 만들고 영어생성체계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한국어에서 그러하듯이, 희미하게 알고 있는 영단어의 의미들로 그 글이 주는 정보를 엉망으로 추측하게 될 것 입니다. 직독직해란 영어원어민들의 독해훈련용으로 고안된 접근법입니다. 이를 한국인들에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듣기는 소리에 의한 정보 전달이므로, 소리를 공간에 붙들어 매어둘 수 없기 때문에 발음에 대한 기초 훈련과 더불어 직청직해와 속청(intensive listening)이라는 훈련을 병행해서 해야 하지만 작문과 독해는 완전히 다른 훈련 영역입니다. 저의 이 줄서에서 우리는 이런 원리들을 터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은 비교적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에 의해 영어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영어 학습에 ‘대박’이라는 천박한 심리만을 들이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어는 ‘기쁜 영어, 즐거운 영어’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부단히 해당분야와 그 학습법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 진실로 알아가는 학습, 영작문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지혜의 격언과 함께 언제나 가시밭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자 김정호

**PART I** | 머리말 ..... 007

**PART II** | 3시간 만에 끝내는 문법 총정리 ..... 012

**PART III** | 칼분석 100제 ..... 021

**칼분석 지문  
100제**

001 번 지문	021
002 번 지문	023
003 번 지문	025
004 번 지문	027
005 번 지문	029
006 번 지문	031
007 번 지문	033
008 번 지문	035
009 번 지문	037
010 번 지문	039
011 번 지문	041
012 번 지문	043
013 번 지문	045
014 번 지문	047
015 번 지문	049
016 번 지문	051
017 번 지문	053
018 번 지문	055
019 번 지문	057
020 번 지문	059
021 번 지문	061
022 번 지문	063
023 번 지문	065
024 번 지문	067
025 번 지문	069
026 번 지문	071
027 번 지문	073
028 번 지문	075
029 번 지문	077
030 번 지문	079
031 번 지문	081
032 번 지문	083

033 번 지문	085
034 번 지문	087
035 번 지문	089
036 번 지문	091
037 번 지문	093
038 번 지문	095
039 번 지문	097
040 번 지문	099
041 번 지문	101
042 번 지문	103
043 번 지문	105
044 번 지문	107
045 번 지문	109
046 번 지문	111
047 번 지문	113
048 번 지문	115
049 번 지문	117
050 번 지문	119
051 번 지문	121
052 번 지문	123
053 번 지문	125
054 번 지문	127
055 번 지문	129
056 번 지문	131
057 번 지문	133
058 번 지문	135
059 번 지문	137
060 번 지문	139
061 번 지문	141
062 번 지문	143
063 번 지문	145
064 번 지문	147
065 번 지문	149
066 번 지문	151
067 번 지문	153

068 번 지문	155
069 번 지문	157
070 번 지문	159
071 번 지문	161
072 번 지문	163
073 번 지문	165
074 번 지문	167
075 번 지문	169
076 번 지문	171
077 번 지문	173
078 번 지문	175
079 번 지문	177
080 번 지문	179
081 번 지문	181
082 번 지문	183
083 번 지문	185
084 번 지문	187
085 번 지문	189
086 번 지문	191
087 번 지문	193
088 번 지문	195
089 번 지문	197
090 번 지문	199
091 번 지문	201
092 번 지문	203
093 번 지문	205
094 번 지문	207
095 번 지문	209
096 번 지문	211
097 번 지문	213
098 번 지문	215
099 번 지문	217
100 번 지문	219

만점으로 가는

≡ **췎** 마지막 비상구

001

문맥이나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라

Cultural differences (1) makes the world an interesting place (2) in which to live. However, in studying how people live, ①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ll cultures have much in common. In nearly every culture, for example, people live in family groups. ② Religious beliefs are also an important part of every culture. (3) So is language. In addition, every culture has ideas about beauty and (4) how to enjoy life. One of the most important jobs of every culture is (5) caring for its young people. This care includes education. Children everywhere learn the culture of their parents.

점검하기

① it + V... + to V.R : (가주어 진주어 용법) to V.R 하는 것은 V하다

- (1) It is nice to have what you want when you want it, but the ability to delay satisfaction is important.  
원하는 것을 원할 때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 (2) It is important to be mindful about every single aspect of purchasing food.  
식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모든 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② A + be + B (명사) : A는 B이다 (2형식 be 동사 뒤 보어 위치에 '명사'가 오면 'A=B' 관계이다)

cf) 주격보어 자리(B위치)에 형용사가 오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써, '주어의 상태를 동사적으로 해석'한다.

- (1) This is a laptop computer.  
이것은 랩탑 컴퓨터이다.
- (2) My job is great.  
내 직업은 대단하다.

Cultural differences make the world an interesting place in  
 S V O O·C

which to live. However, in studying [how people live], it is important to  
 의문사 + to V.R in ~ing 명사절 S<sub>2</sub> V<sub>2</sub> 가S<sub>1</sub> V<sub>1</sub> C<sub>1</sub>  
 =~하는데 있어서 접속사

remember [that all cultures have much in common.] In nearly every culture,  
 진S<sub>1</sub> 명사절 S<sub>3</sub> V<sub>3</sub> O<sub>3</sub>  
 접속사

for example, people live in family groups. Religious beliefs are also an  
 S V S V

important part of every culture. So is language. In addition, every  
 C V S  
 도치구문

culture has ideas about beauty and how to enjoy life. One (of the most  
 S V O 등위접속사 and 병렬구조 단수S 빈출 수일치 문제

important jobs of every culture) is caring for its young people. This care  
 단수V C (동명사) S

includes education. Children everywhere learn the culture of their parents.  
 V O S 후치수식 형용사 V O

**해석**

문화적 차이는 세상을 살기에 흥미로운 곳으로 만든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문화는 많은 것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많은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문화에서,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 속에 살아간다. 종교적인 신념(은) 또한 모든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외에도, 모든 문화는 미(美), 그리고인생을 어떻게 즐길 것 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는, 그것의(그 문화의) 젊은 세대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보살핌은 교육을 포함한다. 모든 장소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문화를 배운다.

**정답**

- (1) makes the world an interesting place.  
 → make the world an interesting place.

Etiquette (1) makes living with other people a more comfortable and pleasant experience. ① Without this, people (2) would act like wild animals. Every person is born selfish. In childhood, we care only about our own comfort. As we grow, we come to know (3) how to act not to disturb others' privacy ② by learning this. This (4) is called a set of rules for appropriate behavior. Every country has its own rules of this. For instance, Americans talk a lot at meals, but it (5) considered inappropriate to do so in Korea. And it is impolite to visit a person without prior notice even if he is a friend while almost every Korean doesn't think it too serious.

점검하기

① without A, S + would + V.R / S + would(might) + have pp : (if 절이 없는 단문 형태의 가정법) A가 없다면, ~했을 것이다.

(1) He might have lost track of time, without the sound of the stroke.  
시계 소리가 없었으면, 그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을 뻔 했다.

② by -ing : -함으로써

(1) Some of us have faith that we shall solv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by developing new technologies for hydrogen engines, wind energy, or solar energy.  
우리들 중 일부는 수소엔진, 풍력에너지, 또는 태양에너지를 얻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해결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2) Make writing as easy for you as you can by not being concerned with how good the first draft is.  
초고가 얼마나 좋으냐에 대해 상관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글쓰기를 쉬운 것으로 만들어라. 당신이 나중에 추구하기를 원하는 생각들을 교정하고 다듬을 시간이 있을 것이다.



003

문맥이나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라

In Brazil, life moves slowly, and personal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han financial success. Social life revolves around friends, relatives, and special occasions, like weddings or communions. People greet each other with a peck on each cheek or a hearty embrace, and (1) **being too much on one's own** is seen (2) **as abnormal**. Business men and women in the cities go home to nearby apartments for lunch. Shops close (3) **from noon to 2 : 00 p.m.** so the family can be together. No one feels (2) **a need to always be on time**, and people get there when they get there. The important thing (3) **is (4) to enjoy life**. All these behaviors (5) **is sometimes seen as lazy** in the view of Americans.

점검하기

1 A be seen as B : A를 B로 보다 / 여기다 / 간주하다 (자주 나오는 숙어 구조) (see A as B의 수동태)

비슷한 의미의 숙어 구조

A be viewed as B / A be thought of as B / A be looked upon as B / A be considered as B / A be regarded as B / A be taken as B / A be taken for B

2 the ability to V.R : ~할 능력

(1) It is nice to have what you want when you want it, but **the ability to delay satisfaction** is important.

원하는 것을 원할 때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2) It rewards insects with a stable environment that enhances **their ability to eat, mate, and prepare for flight**.

이것은 곤충들에게 먹고, 짝짓기하고, 비행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안정된 환경을 보상해준다.

(3) **The ability to sympathize with others** reflects the multiple nature of the human being, his potentialities for many more selves and kinds of experience than any one being could express.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복합적 본성, 즉 어느 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여러 인간상과 각종 경험에 대한 잠재력을 반영한다.

3 be to V.R : -하는 것이다 (be to V.R의 해석법 중 하나)

(1) A common mistake in talking to celebrities **is to assume** that they don't know much about anything else except their occupations.

명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2) In other words, one of the challenges **is to avoid a one-size-fits-all strategy** that places too much emphasis on the "global" aspect alone.

다시 말하자면, 난제들 중의 하나는 단지 "세계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하나의 크기로 모든 것에 맞추는 전략을 피하는 것이다**.

In Brazil, life moves slowly, and personal relationships are more

S V 부사 절의 병렬 S<sub>2</sub> V<sub>2</sub>

important than financial success. Social life revolves around friends,

C<sub>2</sub> more than S<sub>3</sub> S V  
(비교급으로 병렬) S<sub>2</sub>와 S<sub>3</sub>이 비교 됨

relatives, and special occasions, like weddings or communions. People

A, B, and C 병렬 S

greet each other with a peck on each cheek or a hearty embrace, and

V O or 병렬 구조

being too much on one's own is seen as abnormal. Business men and

동명사 S V  
see A as B의 수동태 = A be seen as B

women in the cities go home to nearby apartments for lunch. Shops close

S V 부사 S V

from noon to 2 : 00 p.m. so the family can be together. No one feels a

from A to B = A 부터 B 까지 S V 부정 S<sub>1</sub> V<sub>1</sub>  
부정주어는 부정문으로 전체 해석

need to always be on time, and people get there when they get there. The

O ↑ to 부정사 후치수식 절의 병렬 S<sub>2</sub> V<sub>2</sub> 접속사 S<sub>3</sub> V<sub>3</sub>  
=명사수식. "~할, ~하는, 했던" 명사로 해석

important thing is to enjoy life. All these behaviors are sometimes

S V C S V  
be to 용법 sometimes 부사  
be to : ~하는 것이다 see A as B의 수동태

seen as lazy in the view of Americans.

**해석**

브라질에서, 삶은 천천히 움직이고, 대인 관계가 금전적 성공보다 중요하다. 사회적 삶은 친구, 친척, 그리고 결혼이나 친교와 같은 특별한 일 등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양쪽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애정 어린 포옹으로 인사를 하고, 지나치게 자기 방식대로만 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진다. 도시의 직장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아파트인 집으로 돌아간다. 상점들은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문을 닫아 가족끼리 함께할 수 있다. 항상 제 시간에 맞춰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들이 당도하는 때가 바로 사람들이 당도하는 때인 것이다. (약속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모였을 때 비로소 약속시간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때때로 미국인의 관점에서는 게으르고 보여지기도 한다.

**정답**

(5) is sometimes seen as lazy → are sometimes seen as lazy

004

문맥이나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라

Police officers in all societies always (1) stand very close to suspects (1) when they are (2) asking them important questions. Often managers also stand close when (3) he is trying to get information from their staff. And teachers sometimes do this with students, too, when (4) they doubt they are telling the truth. We all feel uncomfortable when someone stands or sits too close to us. We (2) think of the space near our bodies (5) as our territory.

점검하기

1 접속사 when : ~할 때

- (1) It is nice to have what you want when you want it, but the ability to delay satisfaction is important.  
원하는 것을 원할 때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 (2) In a classic set of studies over a ten-year period, biologist Gerald Wilkinson found that, when vampire bats return to their communal nests from a successful night's foraging, they frequently vomit blood and share it with other nest-mates, including even non-relatives.  
10년에 걸친 전형적인 한 세트의 연구에서 생물학자인 Gerald Wilkinson은 하룻밤에 성공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닌 흡혈박쥐들이 함께 사는 동지로 돌아올 때 그들은 빈번히 피를 토해내서 심지어는 친족이 아닌 박쥐까지 포함해서 동지에서 함께 사는 다른 박쥐들과 그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알아냈다.

2 think of A as B : A를 B로 여기다

≙ [see/look upon/view/regard] A as B

- (1) You see the world as one big contest, where everyone is competing against everybody else.  
당신은 세상을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경쟁하는 하나의 큰 경기로 여긴다.
- (2) Sheets of paper exist almost entir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information, so we tend to think of them as neutral objects.  
날장의 종이들은 거의 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이들을 중립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